



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, 경제성장률 큰 폭 감소 전망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8월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사가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세제혜택종료와 재정지출 감축이 동시에 시작되는 2013년 1월 재정절벽(Fiscal Cliff)이 현실화되는 경우 2013년 경제성장률이 2.2%p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함.

-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11월 대선 이전에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합의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성장률이 각각 0.6%p, 2.2%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- 부시대통령 시절부터 도입된 다양한 세제혜택이 2013년 1월부터 종료됨과 동시에 1조 2천억 달러 상당의 재정지출 감축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며, 이에 따른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(재정절벽)가 예상됨.
-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가 2013년 1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은 20% 이하로 응답하였으며, 임시조치를 통해 재정절벽 문제를 몇 개월 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응답함.

■ 국회예산처(CBO) 또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4%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, 뉴욕타임즈는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로 기업들이 신규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함.

- 국회예산처(CBO)는 재정절벽에 대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충격은 GDP의 4%에 달하는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,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-1.3%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함.
- 8월 5일 뉴욕타임즈는 재정절벽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정치권의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신규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향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함.

(Wall Street Journal, 8/10 등)